

▶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이번주 상영작 '더 포스트'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감춰진 비밀에 접근하다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은 감춰진 비밀에 접근하는 영화 두 편, 할리우드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가 연출한 언론 소재 영화 '더 포스트'와 히가시노 게이고 소설을 영화화한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개봉한다.

28일 개봉하는 '더 포스트'는 1971년 베트남 전쟁의 비밀이 담겨있는 펜타곤 페이퍼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떠들썩했던 가운데 언론인으로서의 사활을 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의 실화를 다루고 있다.

설명이 필요 없는 할리우드의 신화이자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의 언론 소재 영화로, 연기력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메릴 스트립과 톰 행크스가 투톱배우로서 호흡을 맞춘다.

작품은 스필버그가 대형 상업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의 후반작업 진행으로 바쁜 와중에도 시나리오의 훌륭함에 매료되어 남은 시간을 활용하며 12주 동안 신속하게 완성한 작품이란 점에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짧은 시간을 투자해 만든 작품임에도 제90회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으며, 최근에 진행된 전주 아카데미 화제 작 특별전을 통해 개봉 전 관람을 한 관객들 사이에서도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우연히 나미야 잡화점에 숨어든 3인조 도둑이 잡화점 문물에서 발견한 32년 전 편지에 장난삼아 답장을 보낸 것이 과거와 현재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예상 밖의 인연을 알게 되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추리소설의 거장이며 현재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설가중 한 명으로 유명한 히가시노 게이고의 2012년 동명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원작이 최근 10년간 국내 판매 소설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독자를 확보한 작품으로, 국내개봉이 확정된 지난 2017년부터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높은 기대지수를 기록했다. 영화는 오는 3월 1일부터 상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홈페이지(<http://theque.jiff.or.kr>). /정해은 기자



▶ '더 포스트' 스틸 컷



▶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스틸 컷

곧 대보름... 세시풍속 즐기러 가요

대달 2일 전주역사박물관서 한마당

정월대보름은 일 년 열두 달 중 첫 보름 달이 뜨는 날로, 달을 중요시하던 농경사회에서는 나쁜 액운을 막고 풍년을 기원하는 매우 중요한 명절이었다. 대보름을 설날처럼 여기기도 했으며, 부럼깨기·쥐발놀이·달집태우기·귀밝이술 마시기·찰밥 및 떡을 나물 먹기 등의 다양한 풍속은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전주역사박물관은 2018정월대보름을 맞이해 '정월대보름맞이 세시풍속 한마당' 행사를 3월 2일부터 3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의 건강과 풍요로운 한해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성스레 마련한 부럼을 나눠 먹고

전통놀이를 즐기면서 점점 잊혀져가는 우리의 세시풍속과 전통문화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전주역사박물관 1층 로비에서는 '무사태평 부럼나누기'(1일 100가족 선착순)를, 하늘마당에선 투호던지기, 팽이치기, 윷놀이, 제기차기 등 '우리나라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다.

녹두관에서는 특선영화를 만날 수 있다. 이외에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과 새해 소망을 담은 연날리기 체험, 박물관 상설체험도 진행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고유의 세시풍속의 의미를 되새기며,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유료배치 사전등록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3월 1일부터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 유료 배치 사전등록을 진행한다.

전주국제영화제의 배치는 지난 2016년 9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공정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부터 유료화 배치 제도를 도입, 올해 정착기를 맞고 있다.

올해 게스트·전주프로젝트마켓·프레스 배치는 영화제 동안 1일, 1회차당 1매씩 총 4편의 영화를 발권할 수 있으며, 추가로 전주 돌상영작을 본인만 무료발권 받을 수 있다. 또 매진작에 한해 상영 시작 10분 후, 여분의 좌석이 있으면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는 '웨

이트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화·영상 관련 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들의 단체신청으로 받는 아카데미 배치는 영화제 동안 1일, 1회차당 1매의 티켓을 총 3편까지 발권할 수 있다. 추가로 전주 돌상영작에 대한 본인 무료발권과 전주프로젝트마켓 행사장 입장이 가능하다.

영화제는 유료배치에 대한 수요가 증가에 따라 상영관별로 배치 전용석을 최대 25%까지 확보해 영화 관람 기회를 증가시켰다. 또 영화제 관련 굿즈(기념품) 구매 시 관매가의 10%를 할인제공 한다.

유료배치 신청은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홈페이지(www.jiff.or.kr)의 참가신청을 통해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연극배우 송원, 극단 명태 최경성 대표 사과문에

“내 성추행 사건의 발단은 그가 가진 대표 직함서 기인”

“남녀의 문제가 아냐”

극단 명태 최경성 대표가 '성추행 고발' 사태 이후 쓴 사과문에 대해 연극배우 송원이 일침을 가했다.

기자들을 통해 최 대표의 사과문을 접했다고 운을 댄 그는 “제 사건은 남녀의 문제가 아닌 대표라는 직위를 가진 이가 소속배우를 성추행 했다”면서 “그로 인한 모멸감을 준 행위가 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송원은 “최 대표가 사과문으로 이번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지만 하단”며 “그분이 모든 직위를 내려놓고 그저 '예술가'로서 '예술가답게' 살아가시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발단은 그가 가진 대표라는 직함에서 기인했다”고 덧붙였다.

송원은 또한 본인만을 지칭한 사과가 불쾌하다며, 최 대표가 본인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난 다른 피해자들의 이름에도 진심으로 뉘우치시길 원한다고 했다.

한편 최경성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을 가법게 생각했던 저의 무지를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합니다”라며 “꼭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를 구하겠습니다. 모든 관계자들에게도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정해은 기자

완주군, 문화가 있는 날 2개 사업 선정

문예회관 '예술여행플러스' · 향토문화회관 '작은음악회'

완주군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한 2018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 공모에 2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7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27일 완주군은 완주문예회관의 예술여행플러스 사업과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의 작은음악회 사업이 2018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총 4000만원을 지원받게 된 완주문예회

관의 예술여행플러스 사업인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 '오페라 갤러리'는 오페라란 장르를 조금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대형 공연장에서는 만날 수 있는 오페라 나비부인, 라보엠, 아이다 등의 작품 중에서 유명한 아리아를 중심으로 해설이 덧붙인 친절한 오페라 공연을 선보인다.

특히 이 사업은 완주문예회관 주관으로 전

주덕진예술회관과 나주문화예술회관 등 3개 문예회관이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예회관 간 교류 확대 및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의 작은음악회 사업은 '찾아가는 청소년을 위한 (칭)찬, (알)찬, (힐)찬 콘서트'가 총 3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콘서트로 매월 문화가 있는 날 자율기획프로그램, 아마추어단체 합동 생활예술프로그램 등 총 8편의 공연을 진행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다양한 문화 사업을 통해 문화가 있는 날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문화가 일상이 되는 완주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대간을 만나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범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클영상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